

충남지역 워킹맘 실태와 진단

최 효 미 I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충남지역 워킹맘 실태와 진단

- 여성 고용과 관련된 알파벳의 비밀!? -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도로 신장되기 시작한 여성의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낡은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워킹맘, 슈퍼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에는 일하는 엄마의 고단함과 특별함이 여전히 묻어있다. 본고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많지만, 일하는 엄마는 적은 한국 사회의 단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힘들게 양성한 양질의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워킹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인 25세~39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알파벳 M과 같dah여, M-curve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에서 큰 변화가 없는 종모양의 역U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안 돌아오는 것인가? vs 못 돌아오는 것인가?’

한편, 이러한 경력단절은 고학력 여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을 생애주기에 따라 그려보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한번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며, 이때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L과 같아 하여, L-curve라 한다.

그렇다면,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까? 가구소득이 높은 이들은 노동시장참여보다는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시장 복귀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들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 평균보다 충남의 ‘워킹맘’이 많은 이유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워킹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고졸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고용률 자체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졸이상 학력자 비중 자체가 낮아 대졸이상 워킹맘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공공서비스업 분야로, 충남 지역도 공공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지역 워킹맘들은 전국 평균 대비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전문가/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 워킹맘 비중을 높인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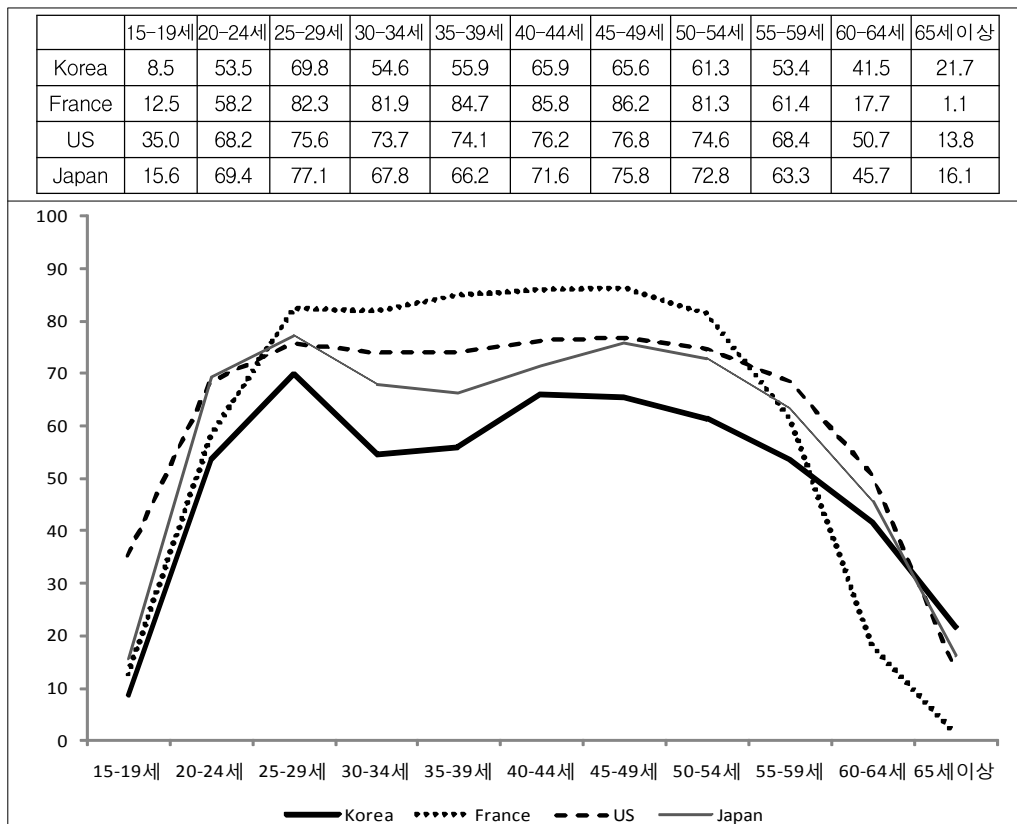
짧게 요약하자면, 충남 지역의 경우 일하는 엄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많긴 하나, 이는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용이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여성 고용과 관련된 알파벳의 비밀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 한국은 다른 OECD국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¹⁾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은 더욱 적음.
-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서서히 증가해서 평평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마치 알파벳 U를 뒤집어 놓은 모양과 같은 역U자형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냄.
- 하지만,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여, 알파벳의 M자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됨. 이를 일컬어, M-curve라 함.
- 아래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굴곡진 형태의 M-curve를 보임.

<표 1> OECD 주요국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2010년)



자료 : OECD, 『OECD 통계DB』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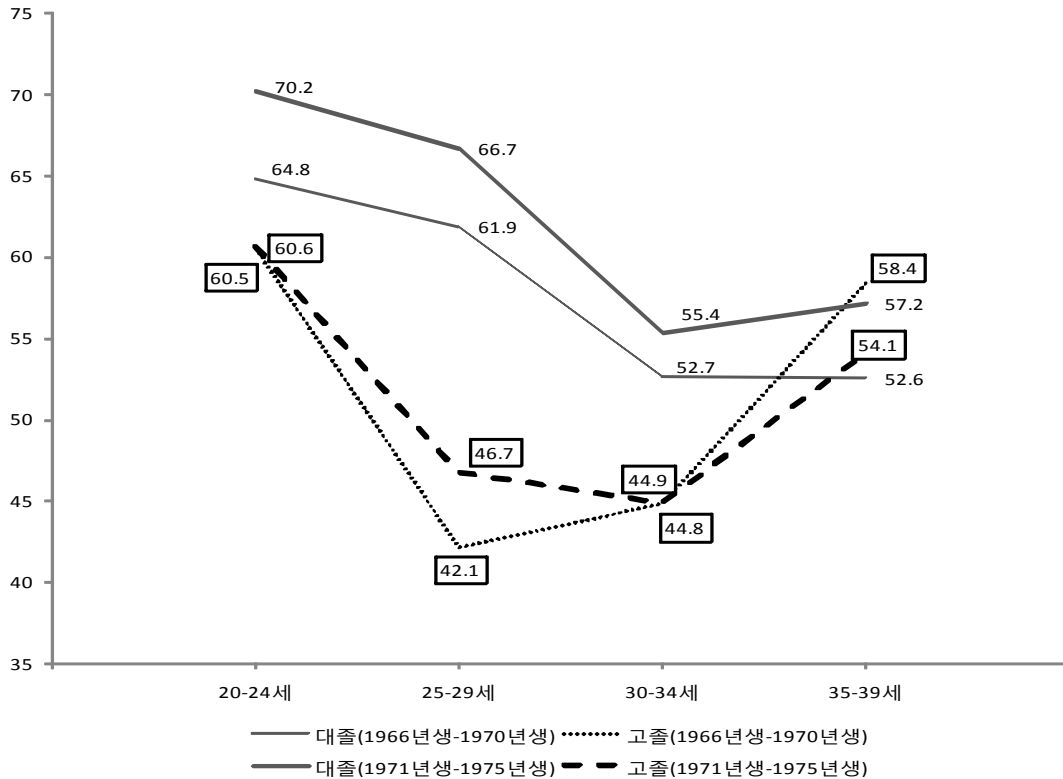
1)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전체 생산가능여성 중에 취업자 +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함.

‘안 돌아오는 것인가? vs 못 돌아오는 것인가?’

- .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낮은 것과 더불어,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답보 상태.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은 노동시장이탈 후 노동시장재진입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생애주기에 따라 그려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음. 이때,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한번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 되었으며,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L과 같다하여, L-curve라 함.
- .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966년~1970년 사이에 태어난 대졸 여성²⁾은 1990년(당시 20~24세) 고용률이 64.8%에서 20년이 지난 2010년(당시 35~39세)에는 고용률이 52.6%로 낮아짐. 이때, 30세를 전후하여 한번 낮아진 고용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을 통해, 경력단절 후 재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 이처럼 1971년~1975년 사이에 태어난 대졸 기혼 여성이 20~24세였던 1995년 당시 이들의 고용률은 70.2%로 1966년~1970년 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진 양상을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전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 이후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지속.
- . 반면, 고졸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의 감소 이후 빠른 속도의 고용률 회복 양상을 보임.
- . 이처럼 고학력 경력단절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더딘 이유가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지, 노동시장참여보다는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2) 이같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구분을 코호트(cohort)라고 함.

[그림 1] 생애주기에 따른 학력별 기혼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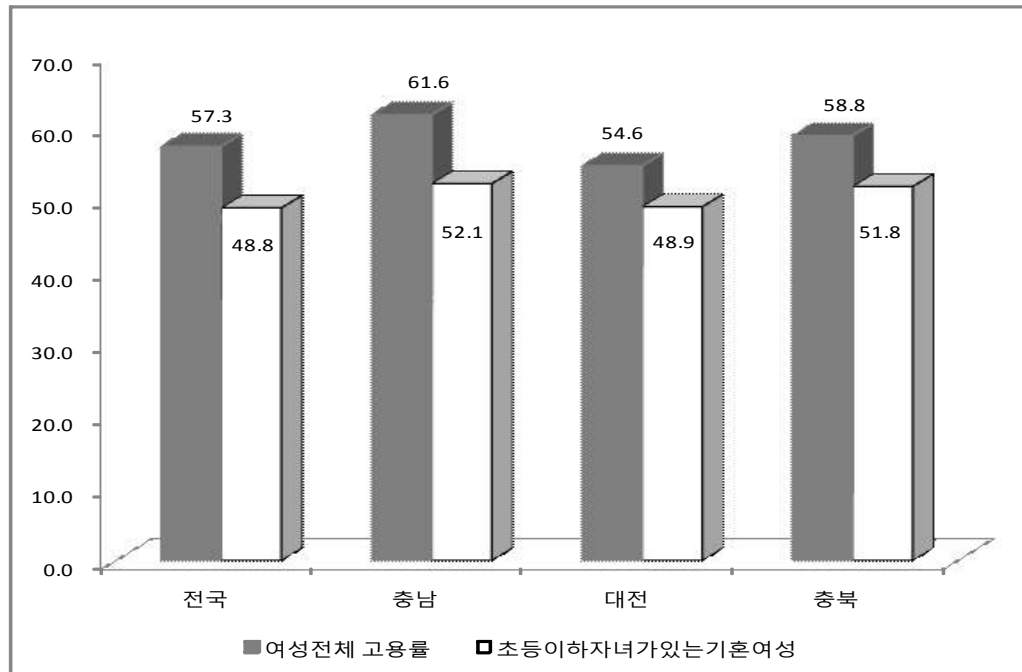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충남 지역 위킹맘 현황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위킹맘 고용률’

- 충남 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61.6%로 전국 평균(57.3%)에 비해 약간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인접 지역인 대전의 여성 고용률은 54.6%로 충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충남은 충북의 58.8%에 비해서도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 비교적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함.
- 여기서, 대상을 경력단절이 심하게 발생하는 기혼 여성, 특히 보육 부담이 가중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림 2]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 취업자(이하 위킹맘)는 전국 평균 48.8%이며, 충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3.3%p 높은 52.1%에 달함. 이는 인접 지역인 대전이나 충북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임.

[그림 2] 지역별 여성 고용률 및 워킹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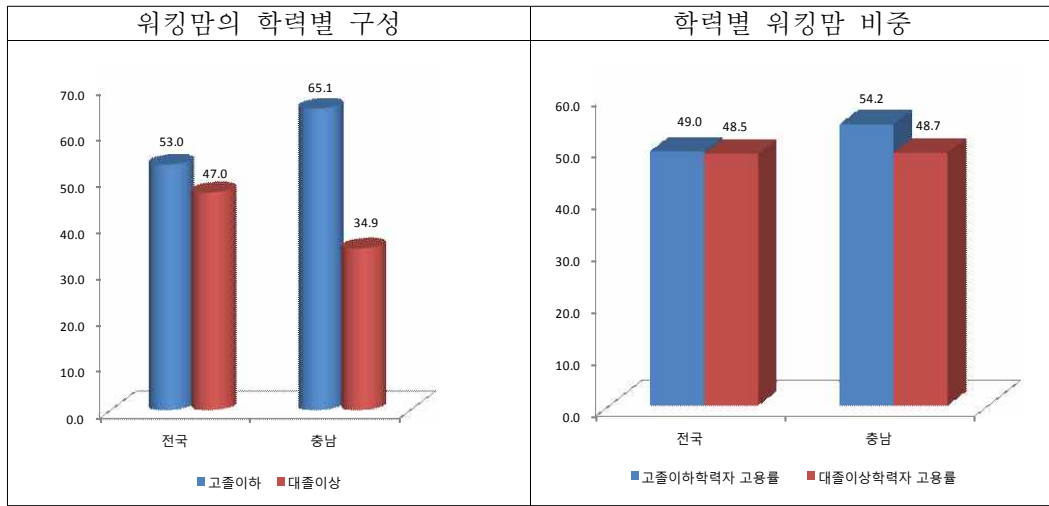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충남 지역 워킹맘, 어떤 특성을 가졌나?’

- 충남 지역의 워킹맘 전체를 100으로 보고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여성의 비중이 65.1%로 대졸(전문대학 포함)이상 여성의 2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보임. 이에 반해 전국 평균 대졸이상 워킹맘의 비중은 47.0%로 고졸이하 여성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고졸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을 100으로 보고 취업자 비중을 구해보면,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의 49.0%(전국 평균)가 일을 하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졸이상 학력자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48.5%로 고졸이하 학력자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고용률을 나타냄.
- 그런데, 충남의 경우에는 학력별 고용률 격차가 더욱 커져 고졸이하 학력자 중 취업자 비중은 54.2%인데 반해, 대졸이상 학력자 중 취업자 비중은 48.7%에 그침.
- 결국 충남 지역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고졸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충남 지역 워킹맘의 평균 연령은 38.1세로 전국 평균 37.9세에 비해 약간 높았음.

[그림 3] 워킹맘의 학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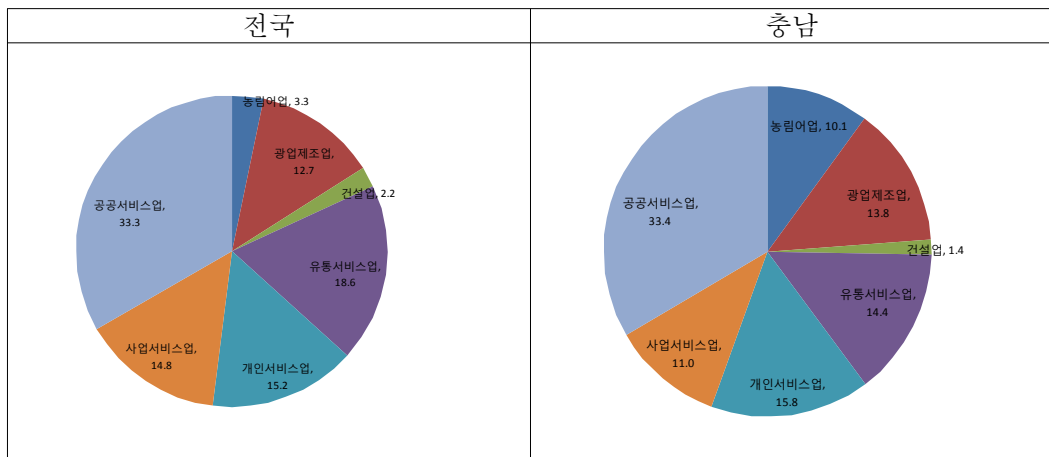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충남 지역 워킹맘, 무슨 일을 할까?’

- 충남 지역 워킹맘의 1/3가량인 33.4%가 공공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인서비스업 종사자가 15.8%로 많았음.
-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비슷한 반면, 유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다소 낮고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약간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워킹맘 산업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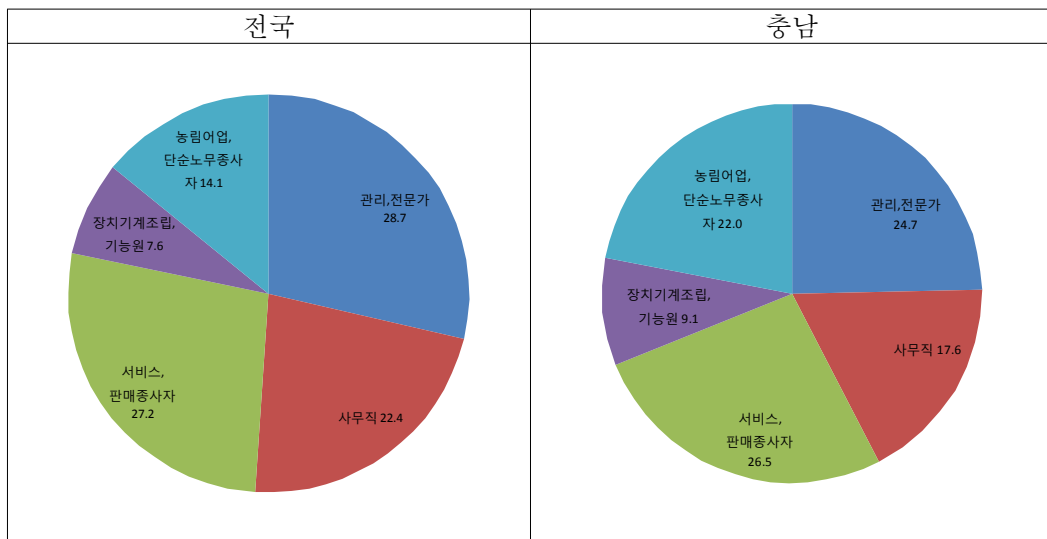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주 : 유통서비스업은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의미함. 개인서비스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됨. 사업서비스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됨.

- 직종별로는 서비스/ 판매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아 26.5%를 차지했으며, 관리직/전문가 비중도 2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무직에 종사하는 충남 지역 워킹 맘은 17.6%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4.8%p가량 낮았으며, 반면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22.0%로 전국 평균인 14.1%에 비해 7.9%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 지역 워킹맘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높은 고용률은 높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에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다만, 분석 자료가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인 점을 감안할 경우, 세종시로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2012년 이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및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됨³⁾.

[그림 5] 워킹맘 직업별 구성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3) 본고는 자녀 여부 변수를 통제를 위해 2010년 인구센서스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녀 여부를 통제하지 않은 기혼 여성의 고용률 추세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